

2025. 6. 17

KIWOOM ESG Weekly



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
시황·ESG 이성훈
shl076@kiwoom.com



Weekly Issue

미 상원, 태양광, 풍력 등 IRA 세액공제 폐지 추진

- ✓ 16 일(현지시간) 미 상원은 2028 년까지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안 초안을 공개. 구체적으로, 태양광 및 풍력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6 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, 세액공제를 원래 수준의 60%로 줄여 2028 년까지 전면폐지한다는 내용. 한편, 하원 법안과 달리 상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선호하는 수력, 원자력, 지열 시설에 대해서는 2032 년까지 100%의 세액 공제를 허용한 다음 2036 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. 해당 세제안이 발표된 이후 미국 내 태양광주는 장외거래에서 주가 폭락.
- ✓ 한편, 지난 5 월 22 일(현지시간) 하원을 통과한 감세안에서도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.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서도 해당 법안 제정 60 일 이내에 착공하고 2028 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태양광, 풍력, 지열, 에너지 저장시설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한정(다만, 원전의 경우 2028 년 말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음). 그 외에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7,500 억 달러의 세액공제(30D)의 폐지 시한을 2026 년 말로 앞당겼음. 또한, 2026 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 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 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.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(45V)도 원래 2033 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게하였으나, 착공 시기를 2026 년 이전으로 앞당겼음.

미 하원, 상원 세제안 내 IRA 세액 공제 혜택 축소 내용

하원	상원
[전기차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규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최대 7,500 억 달러의 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 - 다만, 미국 내에서 20 만 대 미만의 전기를 판매한 자동차 제조사에 한해 2026 년말까지 연장 가능 - 도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전기차에 연간 250 달러, 하이브리드 차량에 100 달러의 수수료 부과. 2028 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[태양광 및 풍력 등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0 일 이내에 착공하고 2028 년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에너지 저장시설에 한하여 세액공제 혜택 부여 - 다만, 원전의 경우 2028 년 말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예외 	[전기차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규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최대 7,500 억 달러의 세액공제를 법 공포 후 180 일 뒤 종료 -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리스용 전기차에 대해 7,500 억달러의 세액공제는 이달 16 일 부터 즉시 종료 [태양광 및 풍력 등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태양광 및 풍력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6 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, 2028 년까지 전면 폐지 - 수력, 원자력, 지열 시설에 대해서는 2032 년까지 100% 세액공제 허용한 이후 2036 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

자료: 언론보도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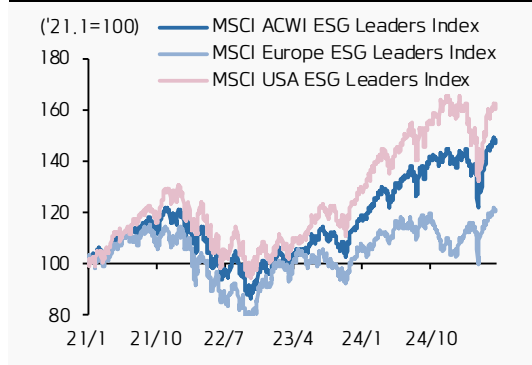
- 당사는 6 월 17 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사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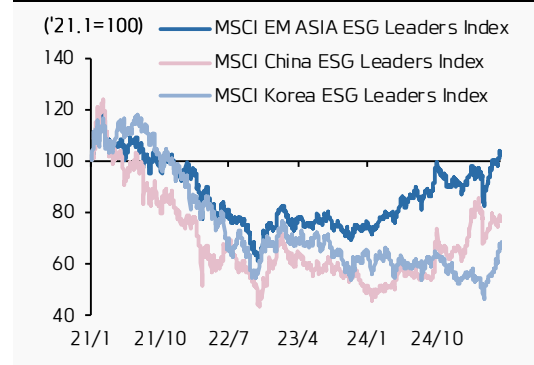
ESG 주요 차트

선진국 MSCI ESG Leaders 지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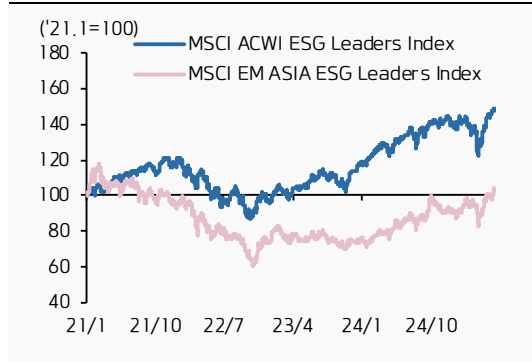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신흥국 MSCI ESG Leaders 지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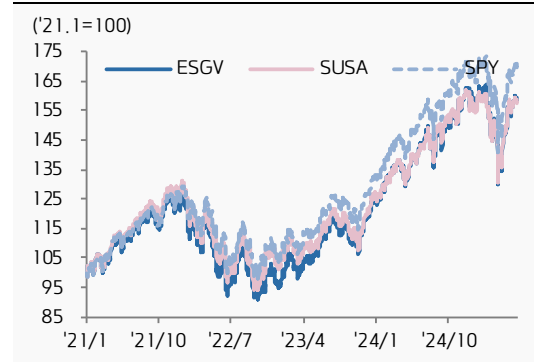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글로벌과 이머징 아시아 지수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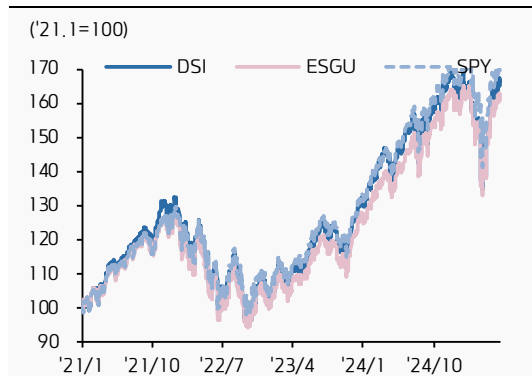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주요 ESG ETF 가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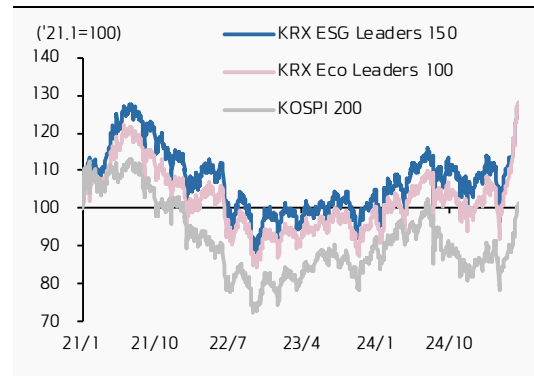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주요 ESG ETF 가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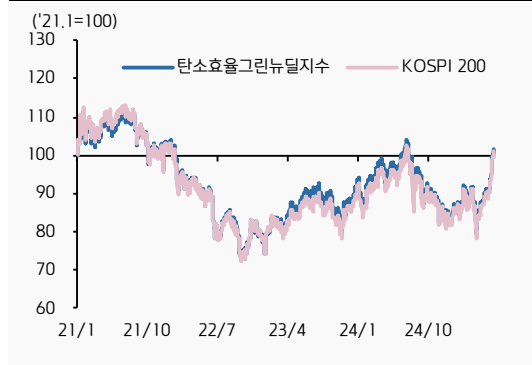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KRX ESG 관련 지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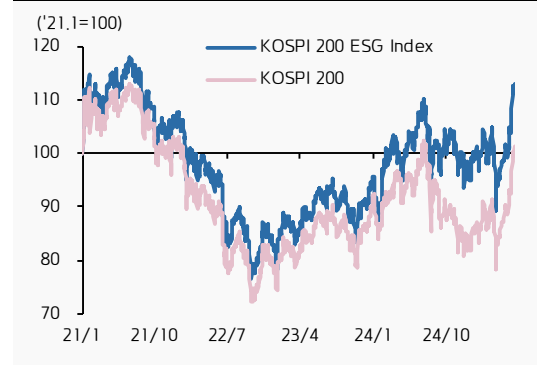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탄소효율그린뉴딜지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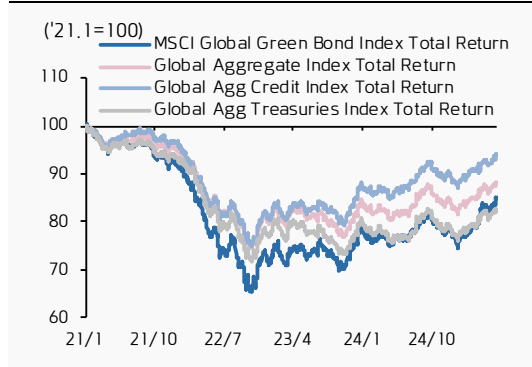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코스피 200 ESG 지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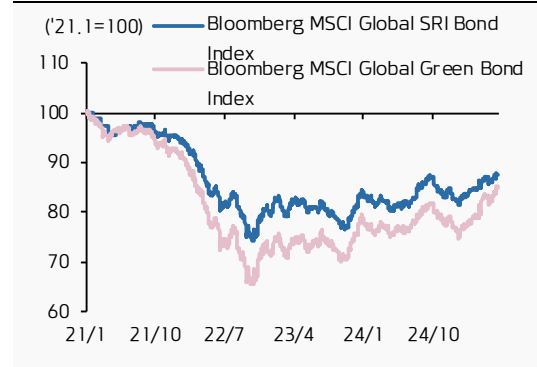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글로벌 채권지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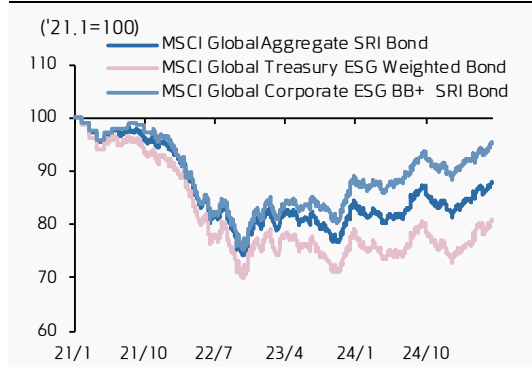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글로벌 책임투자 / 그린본드 채권 지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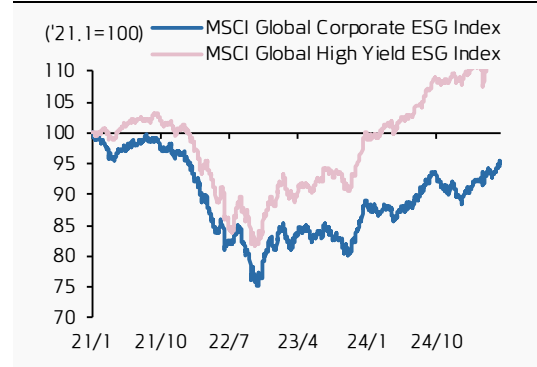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MSCI Global SRI 국내 및 회사채 지수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MSCI Global ESG 회사채 지수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